

중국 1등주 포트폴리오



Analyst 백승혜

02-3771-7521 / sh_baek@hanafn.com

Analyst 송예지

02-3771-8143 / yeajisong@hanafn.com

Analyst 한수진

02-3771-8145 / sjhan@hanafn.com

금주 업데이트 종목

태양관, 텐센트, JA솔라, BYD, CATL 등

포트폴리오 단기 유망 종목

바이두, 하이디라오, BYD

포트폴리오별 수익률 현황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설정일자	주간수익률(%)	1개월 수익률(%)	연초 이후 수익률(%)	누적수익률(%)
중국 천하통일 1등주	2015.04	4.1	(4.9)	(2.5)	13.3
중국 신성장 1등주	2016.12	5.8	(0.4)	3.6	86.3
중국 1등주 (확장 포트폴리오)	2014.04	(0.2)	(5.2)	(1.9)	71.5

주: 천하통일 1등주 : 홍콩 및 중국본토에 상장된 중국 내수 대기업으로 구성
 중국 신성장 1등주 : 홍콩, 중국본토 및 미국 등 글로벌 증시에 상장된 중국 신성장산업 대기업으로 구성

중국 1등주 포트폴리오 종목별 수익률 현황

편입 종목	주간수익률 (%)	PER (배)	ROE (%)	매출액 증가율(YoY, %)		순이익 증가율(YoY, %)		EPS 성장률 (%)	EPS 변동률 (%p)	실적발표일
				2022E	2023E	2022E	2023E			
텐센트홀딩스(0700.HK)	(1.2)	25.0	13.3	(1.1)	11.2	(48.0)	22.6	(193.8)	(0.0)	2023-03-22
알리바바(BABA.US)	(1.4)	10.8	9.1	3.0	11.1	125.6	13.0	(31.5)	0.1	2023-05-26
바이두(BIDU.US)	5.1	14.0	7.5	10.7	9.9	194.6	16.8	86.5	5.0	2023-05-26
징둥(JD.US)	(4.5)	14.6	9.8	13.6	13.1	흑전	28.3	183.0	0.0	2023-05-17
메이판디엔핑(3690.HK)	(2.4)	302.1	(3.5)	21.6	26.9	흑전	588.6	(110.2)	(1.6)	2023-03-27
트립닷컴(TCOM.US)	6.7	29.5	3.9	67.1	25.5	흑전	56.2	(236.9)	9.7	2023-05-15
마오타이(600519.CH)	(1.0)	35.6	28.9	16.3	15.8	18.9	17.4	19.2	0.0	2023-03-30
해천미업(603288.CH)	0.3	50.8	24.9	5.4	13.8	(0.4)	18.3	5.0	(0.1)	2023-04-25
하이디라오(6862.HK)	(7.2)	148.6	8.0	(9.8)	23.9	흑전	254.5	(146.3)	(16.4)	2023-03-23
상하이공항(600009.CH)	(3.4)	-	(7.9)	47.2	115.2	적지	흑전	15.1	0.0	2023-03-24
중국연세(601888.CH)	(0.1)	63.4	16.2	(16.4)	68.3	(38.0)	108.4	(23.3)	(1.0)	2023-04-24
항서제약(600276.CH)	(1.3)	62.9	11.4	(13.4)	14.5	(6.0)	17.5	(1.2)	0.1	2023-04-21
북성제약(2196.HK)	(2.7)	13.6	8.8	14.5	11.9	(18.3)	38.8	30.8	0.0	2023-03-22
BYD(1211.HK)	(8.7)	37.1	14.2	93.0	40.2	409.4	52.0	346.4	0.0	2023-03-29
CATL(300750.CH)	(3.0)	23.1	24.5	33.8	24.7	34.7	31.5	85.2	3.0	2023-05-02
용기실리콘(601012.CH)	(7.0)	21.7	25.9	48.4	23.0	61.9	24.7	79.9	0.0	2023-04-27
JA솔라(002459.CH)	(10.8)	29.8	22.0	71.0	30.6	127.2	56.4	80.2	0.0	2023-04-26
금풍과기(2208.HK)	(5.9)	9.0	7.8	(10.8)	13.0	(9.0)	15.8	(1.6)	0.0	2023-03-27
양광전력(300274.CH)	(14.3)	53.1	18.0	60.9	66.0	101.8	72.4	123.8	0.0	2023-04-19
CIMC엔릭(3899.HK)	(3.8)	13.9	12.2	11.4	12.3	20.8	19.9	12.3	0.0	2023-03-24
사달반도체(603290.CH)	(6.1)	58.6	14.6	62.7	49.3	103.5	39.8	91.3	0.0	2023-04-07
북방화창(002371.CH)	3.4	63.4	11.7	51.6	30.7	99.0	32.4	85.3	0.0	2023-04-28
디세이(002920.CH)	(10.6)	55.1	18.4	50.1	33.3	29.8	49.9	27.1	(0.1)	2023-03-29
하이얼스마트홈(600690.CH)	(1.8)	14.9	17.3	9.1	8.6	17.0	14.3	(14.7)	0.0	2023-03-30
평균	(3.4)	50.0	13.2	26.7	28.9	64.4	69.1	21.3	(0.1)	

주1: PER, ROE, EPS 성장률은 전망치 기준, EPS 변동률은 전주대비 기준, 홍콩상장 종목은 반기 및 연간 실적만 발표,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예상치

태양광: EU 탄소중립산업법 중단기 영향은 제한적

단일 국가 비중 제한으로 중국 태양광 섹터 투자심리 훼손

- 3/16, EU의 탄소중립산업법(Net Zero Industry Act)과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 Act) 초안 발표를 앞두고 유럽 수출 비중이 높은 태양광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급락세를 보였다. 중국 태양광에 대한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던 이슈는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서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제재성 규정 때문이다. 거론되고 있는 해당 규정은 탄소중립 기술 관련 공공조달 입찰 심사 시에 지속가능성 및 공급망 회복력 기여도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이 중 공급망 회복력 기여도에서 단일 국가로부터 65% 이상의 부품 조달 여부 등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제재성 규정으로 보여지고 있다. 유럽은 중국 태양광 모듈 전체 수출량에서 56% 비중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지이다. 중국 태양광 기업은 유럽의 친환경 산업 육성 가속화로 인한 손해가 기대됐었기 때문에 유럽 노출도가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훼손된 것으로 보여진다.

EU 현재 상황 감안 시 중단기 영향 미미

- 현재 EU의 탄소중립산업법이 중국 태양광 기업들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중단기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첫 번째로 EU의 현재 생산능력으로서는 중국 의존도 탈피가 불가능하다. 태양광 핵심 4대 소재인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모듈 모두 생산능력의 75% 이상이 중국에 위치해있다. 과거 중국 태양광 기업들이 미국의 반덤핑관세/상계관세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동남아시아로도 태양광 셀/모듈 생산능력을 확대해 놓은 상황이라 동남아 지역의 생산능력까지 합산하면 중국 기업의 글로벌 태양광 공급망 장악력은 사실상 압도적인 수준이다. 실제로 2022년 EU의 태양광 모듈 수요량은 50GW였으며 동기간 중국이 유럽으로 수출한 모듈 용량은 86GW였다. 작년 EU에 설치된 태양광 대부분이 중국산이라는 뜻이다. 미국이 중국 기업을 겨냥한 동남아산 관세 부과를 2년 유예한 것과 같이 EU도 태양광 설치량 목표치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단기적인 탈피는 불가해보인다.
- 두 번째로 EU 내 소재별 캐파 불균등이다. 유럽의 태양광 소재별 생산능력은 폴리실리콘/웨이퍼/셀/모듈이 각 22/0.45/2.05/6.5GW로 파악된다. 반면 2022년 EU에서 설치된 태양광 신규 설치량은 41.4GW로 자체적으로 보유한 캐파로는 수요 충족이 불가능하여 수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유럽에서 자체적으로 소재별 캐파 균등을 맞춰간다면 하더라도 역으로 설비 증설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 중국산 태양광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유럽은 전력 비용이 높기 때문에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같이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소재는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낮아진다는 문제점도 있다.
- 세 번째로 중국 기업들이 해외 공장을 통한 우회 또는 직접 진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과거 미국이 반덤핑관세/상계관세를 중국 태양광 셀/모듈에 부과함에 따라 해당 제재를 우회하고자 중국 태양광 모듈 제조사들은 이미 동남아 지역에 웨이퍼/셀/모듈 캐파를 구축해 놓은 상황이다. 즉, 기존에는 EU에 중국산 태양광 제품만을 수출했다면 EU가 언급한 단일 국가에 대한 제재를 기업들 자체적으로 중국/해외 공장별로 수출지를 선택하여 우회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국 모듈 제조사들이 미국 역내에 모듈 공장을 증설한 것과 같이 EU 현지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여 진출하는 방안도 있다. 중국 주요 모듈 제조사인 징코솔라와 JA솔라, 용기실리콘은 현재 미국 역내에 모듈 공장을 보유 또는 증설 예정인 상태이다.
- 네 번째로 법안 시행까지 중국 기업들의 대응할 시간은 비교적 충분하다. 해당 초안 발표 이후 입법 과정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태양광 폴리실리콘/웨이퍼/셀/모듈 설비가 증설에 소요되는 기간은 각 18/12/9/6개월로 파악되어 중국 기업들이 향후 공개될 세부안을 확인하며 다른 국가로 설비 증설을 결정할 시간은 비교적 충분하다.
-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センチ먼트 악화로 단기 주가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단기 주가 낙폭이 과대했던 부분은 2Q에 되돌림 현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사안에 대한 제한적인 영향 확인과 1Q에 중국 비수기가 끝나고 2Q에 내수 설치량 회복세가 확인되면서 주가는 반등세를 시현할 가능성도 높다.

전기차

시안시, 전기차 생산 확대와 소비 촉진 지원 정책 발표

- 3/21, 시안시는 <신에너지자동차 생산 확대와 소비 촉진 지원을 위한 조치>를 발표. 시안시는 이번 발표한 조치를 통해 전기차 제조사의 생산 지원과 구매 보조금 지원, 개인 전기차 충전 시설 보조금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혜택을 제공할 계획
- 기업 생산 확대 지원 정책으로는 2023년 시안에서 생산된 신에너지 자동차의 생산량이 2022년보다 증가한 물량에 대해 차량 1대 당 2천위안의 인센티브를 제공. 기업당 지원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최대 금액은 1천만위안으로 설정
- 구매 보조금 지원 정책으로는 올해 3/21부터 4/30까지 시안시의 자동차 판매 업체에서 신에너지 승용차를 구매해 차량을 등록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 차량 금액별 보조금 지급 금액(구매 영수증 기준)은 9만위안 미만/9만~20만위안/20만위안 이상 차량은 1대 당 각 2천/4천/6천위안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개인 충전 시설 설치 지원 정책으로는 올해 1/1부터 12/31까지 설치가 완료된 개인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해 충전기 1개 당 1회용 건설비와 전기료를 포함해 1만위안의 보조금을 지급

플랫폼

주요 플랫폼 기업 이슈 정리

- 메이탄(3690.HK): 자율주행 업체 Pony.ai는 메이탄과 전략적 계약 체결. 향후 자율주행 배송 분야에서 Pony.ai와 협력할 것. 메이탄 신선식품 플랫폼인 메이탄마이차이의 2023년 전략은 외형 확장. 3월 16일, 메이탄마이차이는 작년부터 일시 중단했던 수저우 지점 확장을 올해 2월부터 재개. 경영진은 흑자전환을 달성하는 동시에 화동 지역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언급. 현재 메이탄마이차이는 500 여개의 창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 평균 주문건은 110만건 이상을 유지 중
- 텐센트(700.HK): 3월 23일, 국가신문출판총서는 국내 게임 판호 86개를 허가했으며 그 중에는 텐센트, 넷이즈 등 주요 게임 업체 포함. 3월 20일, 국가신문출판총서는 수입 게임 판호 27개를 허가했으며 그 중에는 텐센트의 Merge Mansion, 넷이즈의 Audition: Everybody Party, 빌리빌리의 Shanyao! 등이 포함

소비

2023년 2월 국내선/국제선 모두 견조한 회복세

- 2월 중국 항공 여객수 국내선 4,245만명 YoY +36%, 국제선 71만명 YoY 7.6배 증가, 2019년의 89%/12%까지 회복
- 트립닷컴(TCOM.US): 2023년 노동절 연휴 패키지 여행 예약건수는 YoY +150% 증가, 아웃바운드 여행 예약건수는 17배 증가. 취날에 따르면 3월1일부터 21일 중국 다수 도시의 항공권 예매량은 2019년 수준 회복. 산야, 청두, 항저우, 광저우, 등 지역은 2019년 수준 상회
- 상하이공항(600009.CH): 3월 26일부터 홍고공항에서 국제선, 홍콩/마카오/대만항 노선 운행 재개할 것. 중국국제항공, 대한항공, 국태항공 등 11개 항공사에서 국제선 노선 운행 예정
- 중국면세(601888.CH): 기존에 해남도 리다오 면세는 섬을 떠날 때에만 면세품을 픽업할 수 있었으나, 4월 1일부터는 면세품을 사는 즉시부터 면세품을 픽업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됨. 해남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주류, 선크림, 선글라스, 운동 장비 등의 면세품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단, 구매 후 30일 이내에 해남도를 떠나야 하며 30일 초과 시 3년간 면세품 구매 금지. 또한, 단품 기준 5만위안 이상의 제품은 일정 금액의 담보를 지불해야 함. 담보 금액은 해남도를 떠날 때 반환받을 수 있음

텐센트

상장 국가

홍콩

섹터

플랫폼

시가총액(조원)

588.8

최근 주가 추이



4Q22 실적 리뷰

- 4Q22 매출은 1,450억위안(YoY +1%/QoQ +4%)으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 Non-IFRS 지배주주 순이익은 297억위안(YoY +19%/QoQ +21%)으로 게임과 광고 사업 부문 GPM이 시장 기대보다 부진함에 따라 컨센서스를 4% 하회.
- 4Q22 총 매출액의 30%를 기여한 게임 매출(YoY -2%/QoQ -2%)으로 3개 분기 연속 YoY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 게임 매출 중 중국 매출(YoY -6%/QoQ -11%)은 2022년 상반기까지 9개월 간의 정부 신규 게임 승인 중단과 이에 따른 신규 게임 모멘텀 부재에 기인해 직전 분기(YoY -7%)에 이어 매출 역성장. 글로벌 게임 매출은 YoY(+5%)와 QoQ(+19%)로 모두 증가. <발로란트>와 <리그 오브 레전드> 매출 호조 지속과 <니케>, <다크타이드> 등 신작 매출 호조로 직전 분기(YoY/QoQ +4%/+9%)에 이어 성장세 지속.
- 총 매출의 17% 기여한 광고 매출은 YoY와 QoQ 모두 15% 성장하며 5개 분기 만에 YoY 역성장에서 플러스 전환. 동영상 계정 광고 매출 호조로 소셜 광고 매출 3분기 YoY 역성장에서 4분기 YoY +17%, QoQ +13%로 크게 반등.
- 총 매출의 33%를 차지한 핀테크와 클라우드 매출은 상장 이래 처음으로 YoY 역성장. 4분기 중국 코로나 확산 여파로 오프라인 활동이 제한되며 페이먼트와 클라우드 실적 모두 타격을 입었기 때문.
- 텐센트의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도 챗GPT 등 AI 관련 사업 전망에 애널리스트들의 관심이 집중. 텐센트는 생성형 AI 기술 응용을 위한 기초 모델 개발에 많은 자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자체 개발 모델은 향후 자사의 SNS 등 기존 사업에 적용 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 출시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 다만, 텐센트는 단기간 내에 관련 기술을 공개할 계획은 없으며, 충분한 개발 기간을 통해 완성도 높은 기술을 확보할 계획.
- 23년은 게임, 광고, 핀테크/클라우드 등 전 사업 부문 회복 전망. 매출은 22년 YoY 역성장에서 23년 YoY 11%로 반등 예상. 게임 사업은 작년 연말부터 내자와 외자 판호 발급이 활성화됨에 따라 올해 신규 게임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 이에 따라 중국 게임 사업 매출은 두 자리수의 플러스 성장 전환이 전망. 텐센트는 작년 12월 1년 반 만에 재개된 외자 판호에서 <발로란트>와 <포켓몬 유나이츠> 출시 허가를 획득했고, 올해 연초 이후에도 6개의 내/외자 판호를 추가로 승인 받음. 최근 2월에 출시한 액션 서바이벌 게임 <언던(Undawn)>은 중국 모바일 게임 연초 이후 누적 매출액 1위를 기록, 1분기부터 게임 실적에 기여가 예상. 광고 부문은 2023년에도 동영상 계정 수익화가 실적 견인할 전망. 핀테크 부문은 리오프닝 이후 오프라인 소비 활동 재개로 연초 이후 가파른 YoY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
- 텐센트는 올해 실적 모멘텀과 함께 양호한 주가 흐름이 기대. 현재 주가는 2023년 예상 12MF PER 22배에서 거래 증으로 과거 5년 평균 PER 30배 대비 저평가 상태이며, 3/22 증가 기준으로 목표가 대비 27% 상승 여력 존재.

바이두

상장 국가	중국/미국
섹터	IT
시가총액(조원)	68.8



바이두 챗GPT 원신이엔 공개 후에도 주가 견조

- 바이두 챗GPT 원신이엔은 공개 첫날 베타 테스트 신청 인원은 60만명, 테스트 신청 기업은 10만개 돌파. 신청 기업 중 650개 기업이 정식으로 원신이엔 사용 전환. 원신이엔 공개 첫날은 실망감에 H주 주가가 크게 하락했으나 둘째 날부터 반등세 재개. 3월 27일, 원신이엔 클라우드 서비스 런칭 예정
- 3월 17일, 시티증권은 바이두 챗GPT 원신이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시티증권은 비록 경영진은 원신이엔에 대해 겸손하게 평가했고, 사전 녹화된 프리젠테이션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으나 현장 발표회를 보며 안심이 되었다고 언급
- 3월 17일, 바이두 로보택시는 베이징에서 완전 무인 주행 시범 운행 허가. 현재 바이두는 베이징, 우한, 충칭 세 도시에서 완전 무인 주행 로봇 서비스 운행. 금번 허가 차량은 10대로 베이징경제개발구 60제곱키로미터 내의 범위를 운행하도록 허가

JA솔라

상장 국가	중국
섹터	태양광
시가총액(조원)	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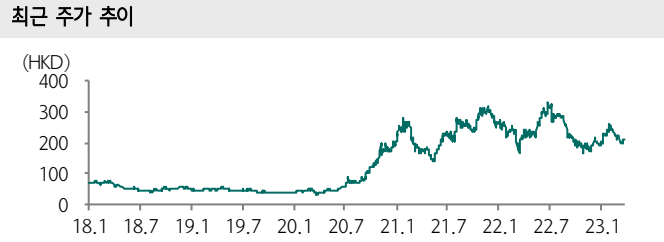


4Q22 실적은 컨센 상회

- 4Q22 매출액은 236.7억위안(YoY +55.6%, QoQ +13.5%), 지배주주 순이익 22.4억위안(YoY +22.4%, QoQ +41.3%)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던 사측 가이드스 상단에 부합. 4Q22 GPM은 17.6%(YoY +1.8%p, QoQ +3.8%p)로 4Q20 이래 분기 최고치 기록. 지역별 2022년 연간 GPM은 중국/미국/유럽/APAC이 각 16.0%/16.8%/13.3%/12.4%를 기록. 2022년 유럽 연간 GPM이 중국 지역 대비 낮은 이유는 2022년 가파르게 상승했던 운임비 영향 때문
- 4Q22 모듈 W당 순이익은 QoQ로 증가하며 수익성 개선세가 기대보다 좋았는데, 동기간 미국 출하량 증가로 인해 고수익 제품 비중 확대와 폴리실리콘 가격과 운임비 하락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유효

BYD

상장 국가	중국/홍콩
섹터	자동차
시가총액(조원)	38.0



감산 루머 부인 및 엔비디아 Drive Orin 플랫폼 적용 모델 확대

- 3/22, BYD는 중국 현지 언론을 통해 로이터통신이 보도한 수요 부진으로 2개 공장의 감산 루머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힘. 현재 BYD의 주문과 판매는 양호하며 3월 판매량은 2월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 참고: 3/21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BYD는 수요 부진으로 시안과 선전 공장에서 감산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BYD는 2교대 8시간 근무를 하는 시안 공장의 일부 근로자들에게 주 4회만 근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짐. 시안 공장(BYD 2022년 완성차 전체 캐파 28% 비중)은 BYD의 Song과 Qin EV를 생산함. 또한 BYD는 선전 공장(BYD 2022년 완성차 전체 캐파 11% 비중)의 교대 근무를 3교대에서 2교대로 축소. 선전 공장은 BYD의 Han 모델을 생산. 이에 대해 BYD는 생산 일정 비공개라는 이유로 언급을 거부함. 로이터통신은 BYD가 올해 초부터 중국의 산업 전반에 걸친 수요 감소에 직면하여 생산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힘. BYD의 이러한 공장 교대 근무 축소가 얼마나 지속될지와 이외 지역의 완성차 공장에서도 생산 일정 변경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음
- 3/21, 엔비디아는 BYD가 더 많은 모델에 Drive Orin 플랫폼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 양사의 이번 강화된 파트너십으로 BYD는 차세대 왕조/해양 시리즈의 다양한 차종에 Drive Orin 플랫폼을 사용하게 될 예정

CATL

상장 국가	중국
섹터	이차전지
시가총액(조원)	182.2



미국 하원 세출위의 Ford 미시간주 공장 건설 자금 지원 승인 및 CATL 인사 교체 이슈

- 미국 현지 다수 언론에 따르면, 3/15에 미국 하원 세출위는 미시간 주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3곳 신설을 위한 5.85억달러의 주정부 자금 지원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짐. 하원 세출위는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어 공화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16:12의 당론 투표에서 인센티브를 지지하게 됨. 추후 상원 세출위에서도 해당 안건에 대한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며 상원 세출위도 민주당이 장악한 것으로 알려짐
- 이번 하원 세출위에서 승인한 5.85억달러의 자금 지원 중 1)2.1억달러는 포드 자동차의 미시간주 마셜 지역 공장(CATL 배터리 기술 라이선스 공장) 건설, 2)1.75억달러는 국현하이테크의 미시간주 빅래피즈 지역 공장 건설(국현 1.25억달러 배정), 3)2억달러는 Our Next Energy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에 지원될 계획
- 3/23, CATL 관계자는 중국 현지 언론에서 보도한 CATL의 시장 체제 부문 총재를 교체한 내용에 대해 정확하지 않다고 밝힘. 같은 날 중국 언론에서 보도한 해당 루머 내용으로는 CATL이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예상보다 부진한 상황 속에서 이를 반영하듯이 최근 부문 총재를 교체했다고 밝힘. 기존 시장 체제 총재가 퇴임하고 상용사업부 총재인 Hanwei가 인계 받았다고 보도

Desay SV

상장 국가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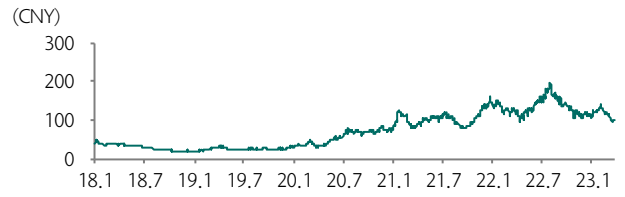
섹터

자동차 부품

시가총액(조원)

10.6

최근 주가 추이



대주주 지분 매각 계획 공시

- 3/20 공시에 따르면, 대주주인 선전시 신화 투자 그룹 유한회사는 공시일 3거래일 이후부터 6개월 내에 보유 지분 798백만주(총발행주식수 1.44%에 해당)를 전량 매도할 계획. 지분 축소 이유는 자체 자금 조달이라고 밝힘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백승예, 송예지, 한수진)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3년 3월 27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백승예, 송예지, 한수진)는 2023년 3월 27일 현재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